

## “이란 기독교인 90%가 감옥에”

### 기독교 인권단체, 보고서 통해 현지 박해 지적

이란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종교와 신앙의자유(International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는 하산 루하니 대통령의 종교자유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이슬람이 아닌 타 소수종교인들이 겪고 있는 종교적 차별과 제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고 심문을 당하거나, 구금 기간 동안 육체적·심리적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성경 공부나 기도를 위해서 소규모 모임을 갖는 것조차 부정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는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독교 박해의 실제 사례들도 소개했다. 한 남성은 소셜미디어 상에 이슬람의 교리에 관한 질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BBC 이란 지역 담당 편집인 사데크 사바는 이에 대해

서 “이처럼 이슬람이나 정부 체제에 대해 단순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최근 이란에서 이슬람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이란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기독교인 인구의 90%가 수감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역시 고발했다. 교회나 기독교인 가정을 급습해 선교나 신앙 활동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살에 불과한 어린이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한 사건도 보고됐다.

한 이란 기독교인 여성은 자신이 당한 박해에 대해서 증언하며, “우리가 살인자나 도둑 같은 범죄자인가? 한 남자가 내게 와서 욕을 하며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보다 살인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영국 내 이란인 선교를 펼치고 있는 모함메드 자미르 목사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희망을 전했다. 손현정 기자



###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나성순복음교회가 교회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제35 소방서에 3천불 상당의 운동 기구를 도네이션 했다. 이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헌금을 지역사회와 선교에 전액 후원하고 있다. 교회가 먼저 소방서를 돕겠다고 했을 때, 소방서 측은 정중히 사양했으나 교회가 진심을 전달하자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동 기구 전달 후 소방서의 주요 관계자들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성순복음교회가 교회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제35 소방서에 3천불 상당의 운동 기구를 도네이션 했다. 이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헌금을 지역사회와 선교에 전액 후원하고 있다. 교회가 먼저 소방서를 돕겠다고 했을 때, 소방서 측은 정중히 사양했으나 교회가 진심을 전달하자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동 기구 전달 후 소방서의 주요 관계자들은 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PCUSA ‘동성결혼 수용’ 개정안 결국 통과

### 총회 결의 이어 노회 투표서 과반...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교회 내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전통적인 교단법 중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노회 투표에 부치기로 했었다. 노회 투표가 진행되는 내내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는 등 일찌감치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 가운데, 17일 PCUSA는 마침내 172개 노회를 중 찬성표가 많은 곳이 86곳을 넘어 과반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회의 규례법 중 일부로 포함되며, 오는 6월 2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 주례를 할 수 없다. 현재 미국 내 컬럼비아 특별구와 36개 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더 프레스비테리언 아웃룩(The Presbyterian Outlook)의 레슬리 스킨론은 “기독교적인 결혼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용어를 바꾸는 것은 총회의 승인 및 노회의 다수결 투표로 진행된다. 또 결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교단법에 삽입하는 것은 교단에 속한 많은 노회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PCUSA는 2010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직 임명을 허용하기로 결정, 이에 반대한 150개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로마가톨릭과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결혼을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

러나 영국성공회,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美 연합감리회를 비롯한 다른 주류 교단들은 동성결혼 허용과 관련된 논쟁을 진행 중이다.

펠로우십커뮤니티 전국 대표인 폴 디터맨(Paul Detterman) 목사는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다.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보다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투표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 위에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반 가운데 일부를 잃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반면, 모어라이트프레스비테리언스(More Light Presbyterians)의 알렉스 맥닐 이사는 “이번 결정은 어느 누구의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이는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된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의 신성한 서약을 확정하는 것과 같다”고 반가워했다. 강혜진 기자

## 임 목사 구명 위한 기도 운동 시작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 구명을 위한 움직임이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욕교협은 12일 오전 10시 30분 퀸즈한인교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임 목사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임 목사의 구명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돼 임 목사가 무사히 조기 석방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참석한 이들은 ‘임현수 목사 석방 및 송환을 위한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호소문은 “임현수 목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미주 한인교회들로부터 도움을 호소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 왔다”면서 “북한은 임현수 목사를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고 캐나다 정부와 유엔은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힘써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도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11일 뉴저지 클리프톤에 위치한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에서 열었다.

김대원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최상의 호스피스 전문가 팀(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해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으로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박영심 간호부장  
 Tel: (213) 380-1100 Cel: (213) 700-6989

## 미주대한신학대학교

### 신입·편입·편목 학생모집

한국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는 1948년故 김치선 박사께서 설립하여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1995년 총회인준 미주지역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교육국인가** (Education Code 94874(e)(1))로 B.A., M.A., M.Div., D.Min., D.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 신학대학교로 **신입생, 편입생, 교단교육생(편목)**을 모집하니 수시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대한신학대학교의 특징

- ▶ 기간: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로 누구든지 단기간에 학점을 따면 전과정을 마치고 정식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 학비: 본 신학대학교는 교단장학금으로 누구든지 **반값 등록금**으로 공부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처함
- ▶ 안수: 본 신학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을 수 있게함

#### DLC Course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경제적, 시간적 여건으로 강의 출석을 할 수 없음을 위한 과정인(Distance Learning Course). 이 과정을 통해 본 대학에서는 보내는 학습교재와 지침을 따라 이수하면 학점인정을 받게됨. 단 과목(21학점)에 한함.  
 (DLC 과목: 전도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도학, 모세오경, 공관복음, 바울서신)

#### 총장: 권오달박사 / 부총장: 박효우박사, 김상돈박사 / 학장: 박병구박사 / 이사장: 류당열 박사 / 토렌스분교학장: 김영구박사 / 스포츠선교학장: 김영배박사 / 인랜드분교학장: 강부웅박사 연락처: (562)924-3330(총장), (213)905-0103(학장), (323)731-9819(이사장)

### 학위과정과 이수학점

남·여전도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평신도선교사 Diploma	60학점	세례교인으로서 학력제한 없음
신학사 B.A.	120학점	고등학교 졸업자, 일반대학 2년 수료자
신학석사 M.A.	60학점	신학사학위 소지자, BA 학위소지자
목회학석사 M.Div.	96학점	BA, MA 학위 소지자나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목회학박사 D.Min.	48학점	M.Div.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
신학박사 D.D.	48학점	Th.M. 소지자, M.Div. 소지자, D.Min. 소지자 추가학점만 취득
교단교육 편목	12학점	조직신학, 교단신학, 교단사, 총회헌법을 Campus On/Off로 이수 이수증, 이력서, 목사안수증 사본을 제출하면 남가주노회에 가입됨

- 구비서류 : 이력서, 입학원서(추천서 첨부) 여권사진 2매를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서류심사 후 입학여부를 통지함
- 불학기 : 매년 1월
- 여름특강 : 불학기에 이어서
- 가을학기 : 매년 9월
- 겨울특강 : 가을학기에 이어서

## 미주대한신학대학교

E-mail: daeshin47@hanmail.net(학교), daeshin48@naver.com  
 L.A. 본교 CAMPUS: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당신의 교회, 클럽하우스인가? 구조선인가?

##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는 “복음과 목회적 선택”이란 강 의에서 현대 교회가 겪는 목회적 갈등을 다뤘다. 그 핵심은 “클럽하우스나 구조선인가”다. 이 명제를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가 클럽하우스처럼 기존 교인들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새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야 하느냐가 된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찬규 목사

는 또 다른 질문은 “당신은 구조선의 사역적 리더인가, 아니면 의사결정 구조의 피해자인가?”다. 새 생명을 구하는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교회 내 당회나 제직회 등과 대결하는 위치에 선 사람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목사는 “클럽하우스에서 구조선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을 여는 야전군의 모델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즉, 모든 교인들이 구조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시무하는 한마음교회는 당회나 제직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조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 생명이 영적으로 성장해 사역자로 세워지는 구조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찬규 목사는 양립되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예를 들면 돌봄의 목회나 양육의 목회나 선택이다. 돌봄을 가치의 중심에 놓으면 영적 소비자를 양산하며 교회를 피동화·노령화시킨다. 모든 말씀 공부나 기존 교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기 쉽다. 나아가 이 문제는 목회의 대상에 있어서는 핵심 멤버나 새 생명이냐의 문제가 된다. 그는 “교회 내에 핵심 멤버가 중요하지만, 목회의 대상은 새 생명이어야 한다. 병원이냐 구조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구조선으로서의 교회론은 선교적 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적 명령에 깨어 있고 미



OC 교협 주최 7인 7색 목양 콘서트에 참석한 목회자, 사모, 신학생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전도종족이나 이민사회 내부의 미전도종족에게 언어·문화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뚜렷한 디아스포라 선교 모델이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디아스포라 고유의 선교 전략보다는 물량적 필요를 채우는 선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도행전적 역동성, 성령의 필요를 따라 전체의 퍼즐을 부분적으로 채워가는 전략적 선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위 성공한 모델을 따르는 패러다임 팔로워가 아니라 복음의 비단길을 여는 패러다임 크리에이터가 되자”고 도전했다. 김준형 기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계속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강사 7명의 목양 이야기를 통해 큰 도전을 받았다.

# “목회자 자기 계발, 거룩한 불만족 가져야”

##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평생 학습자로 살라” 강조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 등 여러 사역에 있어서 분명 자기 계발을 필요



강준민 목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를 인용했다.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쫓대를 이루기 위해 부족함을 느끼며 달려갈 때 자기 계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자기 계발이 단순한 노력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이 일은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자아상 확립,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

요하다. 강 목사는 계발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해 지성, 감성, 체력, 영성을 꼽으며 한 분야에 통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권했다. 한 분야에 통달할길 열망하면서, 좋은 코치를 만나고 그에게 순종하며 배워야 한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탁월함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분야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강 목사는 “먼저 작은 것을 시도 함으로 점점 더 발전하라,” “평생을 학습자로 살아가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적 독서를 꾸준히 하고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묵상하며 실천해 보라,”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사역과 연결시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 다양한 강의 통해 이민 목회자 정체성 재발견

이 세미나에서는 한기홍 목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민 목회자”, 유관재 목사의 “건강한 목회, 행복한 목회”라는 강의가 이어졌고 강의에 앞서 김기동 목사가 “아! 이민목회, 그 황홀한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

을 했다. 세미나를 마친 후에는 축복의 시간을 마련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다. 김기동 목사는 행사에 앞서 이 목양콘서트에 관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OC교협 주최 7인 7색 목양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건강한 목회는 건강한 목회자 정체성으로부터

OC교협 주최 7인 7색 목양 콘서트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7인 7색 목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유관재 목사(일산성광침례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찬규 목사(프랑크푸르트한마음교회) 등 6명의 목회자와 함께 오렌지카운티

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가 강사로 나서서 강연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교회 성장이나 부흥보다는 목회자 자신과 건강한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이민목회”로 선정됐다. 세미나는 당일 등록까지 합쳐서 200여 명 이상의 목회자, 사모, 신학생들이 참석했다.

##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목사는 더 싫다는데...”

한기채 목사 “이제 ‘윤리 목회’ 해야... 메신저가 메시지”

한기채 목사는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가”란 제목의 강연에서 목회 윤리 문제를 집중 조망했다.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이제는 윤리 목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업은 거룩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특별히 목회직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거룩한 부르심”이라면서 “목회자는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사회 신뢰도 하락, 목회자의 권위 실추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 도구로 본 어리석은 농부처럼, 목회자들이 신자를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면 회개해야 한다”면서 “목회직이 성직자의 생활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목회가 깊은 영성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 목회는 전문 기술이 아니라 신앙이요 영성”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메신저가 메시지다. 설교자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근래 한국교회에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목사는 더 싫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깨끗하고 정직하며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교회가 세상의 죄로 고통당한다기 보다는 세상이 교회의 죄로 고통당하는 실정”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 목회에 관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진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어야 했다. 진리는 인식론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념이다. 진리는 인격적인 것이며 바른 삶에 담긴 때에 비로소 진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 목회는 성품 목회, 감동 목회, 안식 목회, 녹색 목회라고 정리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성품대로 살게 되며, 목회 역시 성품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범사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맺으며 목회해야 한다.

또 사람은 감동을 추구하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하고, 최고의 리더십은 감동의 리더십이다.

나아가 목회자도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사역해야 한다. 안식의 재발견은 행동보다 존재를 앞세우는 진정한 영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녹색 목회는 말 그대로 친환경적 목회다. 이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적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해



한기채 목사는 현대 목회 윤리의 핵심을 성품 목회, 감동 목회, 안식 목회, 녹색 목회라고 정리했다.

준다. 최근까지의 윤리는 주로 목적론적·의무론적 윤리, 책임 윤리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런 윤리는 행복, 자유, 평화, 정의가 강조되면서 의무, 원칙, 명령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군내 폭력, 예블라 등의 문제는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생명론적 윤리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현대 윤리 목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 “목회자 정체성은 말씀 위에”

말씀과 삶 일치 이루는 목회 해야

이 세미나에서 지형은 목사는 “목회자는 누구인가”란 주제를 말씀 목사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지 목사는 독일 보쿰대학교에서 교회사와 교리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신학계에서는 독일 경건주의에 관해 최고의 학자로 꼽히고 있다. 경건주의는 17세기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를 시초로 독일 개신교계에서 일어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며, 말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지켜 살게 하는 것이기에, 목회자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에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목회자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느냐에 목회자의 목회자 됨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르틴 루터의 만인 사제제의 핵심도 바로 말씀 사역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지 목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셨기에, 말씀이 작동하는 곳에는 죄가 설 자리가 없다. 목회자이기 전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이해해야 목회자가 건강해진다”고 조언했다.

요약하면, 목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기에, 목회자는 바로 그 사역을 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지 목사는 “성령의 시대는 말씀이 삶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말씀-삶 운동’의 과정”이라면서 말씀 목사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는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지 목사에 따르면, 성경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의 컨텍스트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결론적으로 지 목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갱신이 절실한 때다. 모든 종류의 신앙적 갱신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고 기독교 역사의 가르침이다. 갱신의 초점은 바로 말씀의 묵상”이라고 전했다. 물론 여기서 말씀 묵상은 삶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김준형 기자



지형은 목사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하이마트-서북인명당) T.323.737.8888

Fullerton 지점: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향마케팅) (이리향마케팅)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FULL GOSPEL WORLD MISSION INC.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일시: 2015년 3월 25일(수) 19:30 장소: 나성순복음교회당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단장  
사단법인 굿피플 이사장  
재단법인 순복음세계선교회 이사장

**일정안내**

목회자 세미나 8:30am (최성규 목사 / 이태근 목사)

북미총회 목사 안수식 11:00am (설교: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7:30pm



• 이석철 교수의 신앙산책

### 어떤 회를 좋아하십니까?



이석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교회의 일부 모습을 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따뜻한 대담을 하기 위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럴려면 우선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체감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회(會)'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다. '모을 회', 또는 '모일 회'라고 읽는 이 글자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렇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어떤 공공장소로 불러낸 사람들"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들로 묘사돼 있다. 누구에게 문안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주체로 그려져 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두 개의 광고가 나란히 실린 것을 본 적이 있다. 하나는 "교회 매매"라는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배당 매매"였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 매매"는 인신매매이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에 있어서 건물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다. 이는 마치 가정의 본질이 하우스(house)가 아니라 홈(home)에 있는 것과 같다. 하우스는 단순히 사람들의 거처가 되는 물리적 구조물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홈을 만드는 일이다.

수년 전에 미국 남부의 흑인 교회당들이 화재로 소실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시골 흑인 교회당이 불에 탄 현장을 TV로 본 일이 있다. 그 교회의 한 여신도에게 기자가 물었다. "당신네 교회가 불 타 없어졌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녀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누가 불을 질렀다고 우리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We are the church!" --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

회의 본질은 '회'에 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수많은 '회'가 있다. 친목회, 동호회, 동창회, 국회 등, 여러 모임들이 있다. 그 많은 '회'들과 '교회'라고 불리는 '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집단들과 구별돼야 한다. 그 차별성은 '교(敎)'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다. '교'는 가르침을 뜻하는 말이며 종교의 준말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종교이며 교회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바로 이 신앙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요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그 분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주님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 말이다. 실로 세상의 수많은 회와 구별되어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어야 한다. 이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가 된다. 어떻게 성도로서의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성도들이 교인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항상 교회로 번역되는 말은 아니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에 이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모인

무리," "민회," 그리고 "모임"으로 번역돼 있다. 이처럼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 민회(民會)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민회가 아니라 교회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회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서로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본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이 영적 유기체로서의 특성이다.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서로 영적인 혈연관계를 맺게 된다. 말하자면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귄 교'자를 써서 '交會'라고 쓰자고 했다. 일리 있는 제안이다. '教會'는 '交會'다. 교회는 하나님 안의 교제공동체이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친구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특별한 가족이다. "우리는 감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 특성 중 하나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이다. 초기의 기독교는 관계였는데 그리스로 넘어가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으며, 미국과 한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 세상 단체 같은 민회가 아닌 성도들의 교회, 기업체나 군대 같은 교회가 아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끊임없는 반성과 실천으로 말이다.



노숙자 음악회와 식사 행사를 함께 준비했던 봉사자들

### 노숙자를 위한 위로의 밤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지난 3월 7일(토) 오후 6시 30분 교회 체육관에서 노숙자를 위한 음악회, 저녁식사와 더불어 일일숙박을 제공하는 섬김의 시간을 본 교회 부설인 은혜봉사센터 주관으로 은혜한인교회 오케스트라팀과 함께 가졌다.

약 150명 정도의 노숙자와 봉사자들이 함께 한 행사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은혜봉사센터는 2008년부터 현

재까지 매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5개월간 여러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헌신으로 약 25,000개의 샌드위치들을 만들어 매일 새벽 플러튼 지역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팀(악장 정승재 집사)은 매 주일 예배와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Youth 오케스트라 팀도 운영하고 있다. 봉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문의) 714-944-0834

유국희 기자



CMF가 선교사 후원을 위해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다.

### CMF, 선교사 돕기 위한 음악회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주최로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가 14일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벌써 11회 째를 맞이한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선교사 15 가정을 돕는 데에 사용된다. CMF는 지난 10번의 콘서트를 통해 불우이웃, 어린이보호수술,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20명 선교사 자녀들을 도운 바 있다.

올해 콘서트에는 카리스 크리스천 챔버, 소노러스 싱어즈, 소프라

노 최정원 등이 참여해 선교사 가정 돕기에 힘을 모았다. CMF는 1991년 김철민 장로에 의해 설립돼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 운동을 하고 있다. 결혼 교실, 부부 교실 등 훈련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 싱글맘 사역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거나 현지로 찾아가서 섬기는 행사는 선교사들의 치유와 회복, 재충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수현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민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선교사님들께 GO!전도지를 보내세요!

28개 언어로 이미 730만부 이상 인쇄된 강력한 복음의 도구



조영장로

- ANC은누리교회 전도사역담당 12년 역임
- GO!전도집회/세미나 강사 (전국 한인교회, 멕시코교회)
- GO!전도 추천도서 출판: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
- GO!전도지 28개 언어로 730만부이상 인쇄
- GO!전도사역원 책임강사

GO!전도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미주한인교회의 전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미 수백만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미주한인교회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강력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전도전략입니다.

GO!전도사역원, Los Angeles, CA  
[www.GoNowSave.com](http://www.GoNowSave.com)  
Tel: (661) 575-7744

### 다인종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GO!전도지



- (1) 한국어 (2) English (3) Spanish (4) 일본어 (5) 중국어 (6) Arabic (7) Burmese (8) Cambodian (9) Filipino-Tagalog (10) French (11) German (12) Haitian (13) Hindi (14) Indonesian (15) Italian (16) Javanese (17) Polish (18) Portuguese (19) Punjabi (20) Russian (21) Swahili (22) Telugu (23) Thai (24) Turkish (25) Ukrainian (26) Urdu (27) Vietnamese (28) 2개 언어 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29) 2개 언어 전도지(한국어 & 영어) (30) 3개 언어 전도지(영어, 스페니쉬 & 한국어) (31) 어린이전도지(영어 & 스페니쉬)

### 당신도 미국땅의 다인종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복남미 대륙의 다민족 영혼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강력한 GO!전도지를 들고 활짝 웃으며 다가갈 기쁨과 담대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미주한인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희소식!

#### 목사님들과 전도사역자들에게 FREE GIFT!

다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GO!전도지 샘플과 GO!전도현장의 생생한 감동의 책, "나가자, 선포하자, 승리하자"를 FREE로 보내드립니다. Email: [sync@GoNowSave.com](mailto:sync@GoNowSave.com) (보내주실 내용: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주소, 우송 주소, 전화번호)

#### GO!전도집회/세미나를 추천합니다!

2일간의 GO!전도집회/세미나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정립/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대는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복음의 현장에서 체현케 하신 수많은 놀랍고 감동적인 간증들을 통해 도전하고 훈련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 이사야 11:1~9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육축들, 씨가진 채소, 물속의 어류들,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특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모든 조건들을 삶의 바탕으로 활용하여서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에덴동산에 마귀사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마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금하신 계율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게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기질을 그대로 흉내낼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파생시켜 주셔서 사람들만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어떤 짐승에게도 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종교심리를 나타내고 여러 모양의 자기 섬김의 우상을 만들어 정신적 지주를 삼고 위로와 도움을 기도하는 이런 것을 신앙적 용어로 종교심리라 합니다. 종교(宗敎)는 근본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간다는 뜻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앞으로 이새에게서 뻗어나갈 연한 순이 가지가 되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이것은 이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이새나 이새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원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짐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가지가 나서 자라가지고 반드시 결실할 것이라”

예수님도 동정 탄생하셔서 삼십 년 동안 준비과정으로 기도하며 지내셨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열린 하

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도 자기 사명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의 성령이냐는 설명이 여기 2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만 힘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께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약 800년 전에 예언되었는데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은 예언이며 신약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30절 “나를 보내신이가 항상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며 힘써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와 허물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택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형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지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체질이, 땅 덩어리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서 지금은 오대양 육대주라 하는데 그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땅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역사하면 부부사이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영적 소속이 다를 때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참고 견디며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서 끝내 승리함으로 악령을 물리칠 때 가정 인가귀도(家歸途)되어 성령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이 가정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서 3년 반을 계신다고 하면 이 땅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회포와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한 믿음은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해서 마귀의 소굴에 함께 어울려 지옥길에 빠져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얽여져서 불의와 함께 마귀에 속하여 돌아가 버리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어린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될 자들도 있더라고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밤에 재림하신다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질년 대한난이 있는데 재림전 삼년반은 하나님이 성도를 적그리스도에게 부치심으로 불신 세력에 의해서 온갖 환난과 핍박, 행패, 고통,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임의 기운으로 세상에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 임에서 나가는 기운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만큼 그들을 살지 못하도록, 견디기 어렵게 예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망에 가둡니다. 그런 후 땅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한꺼번에 솟아서 뒤집어져 버리고 지구의 형체가 불에 녹아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 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왕국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죽어서 음부와 사망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앞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짐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빛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6~9)

땅덩어리가 하늘과 함께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뒤집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고 온갖 짐승도 구원 받은 성도들의 부활한 세계에 함께 사는데 서로 절대로 해하는 일도 상하게 하는 일도 없더라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먼저 거기 들어갈 자격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제).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제는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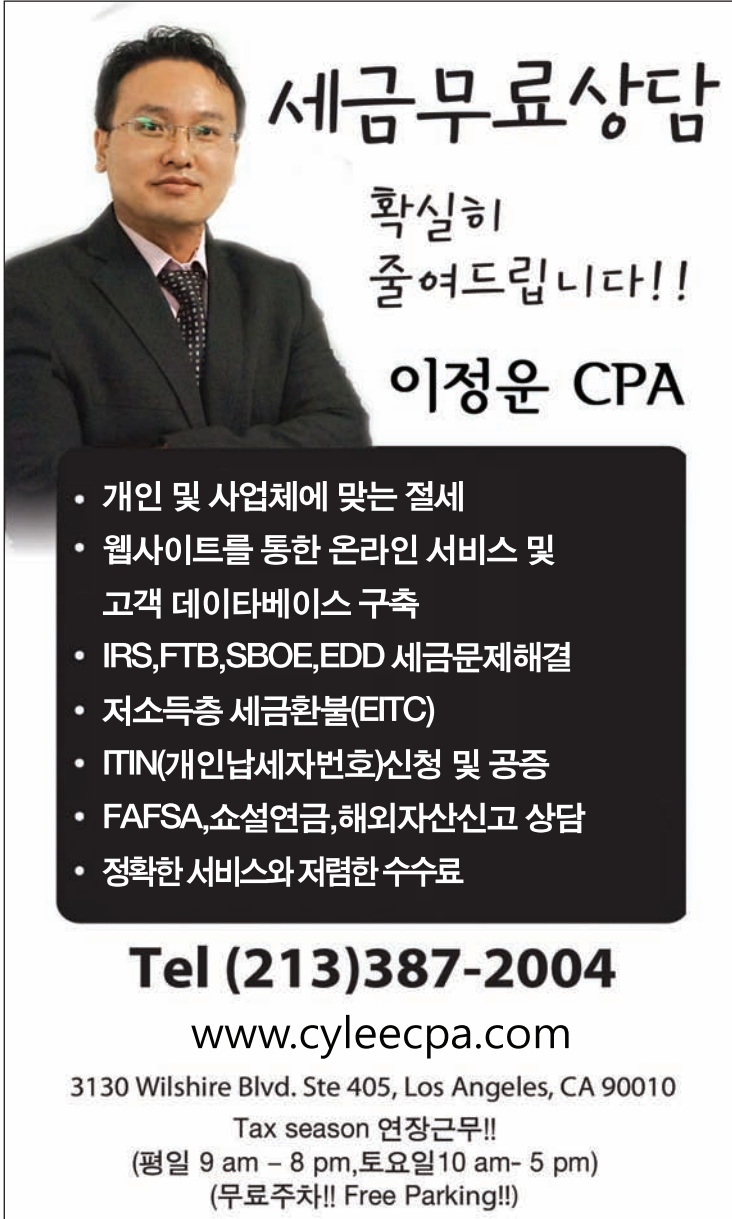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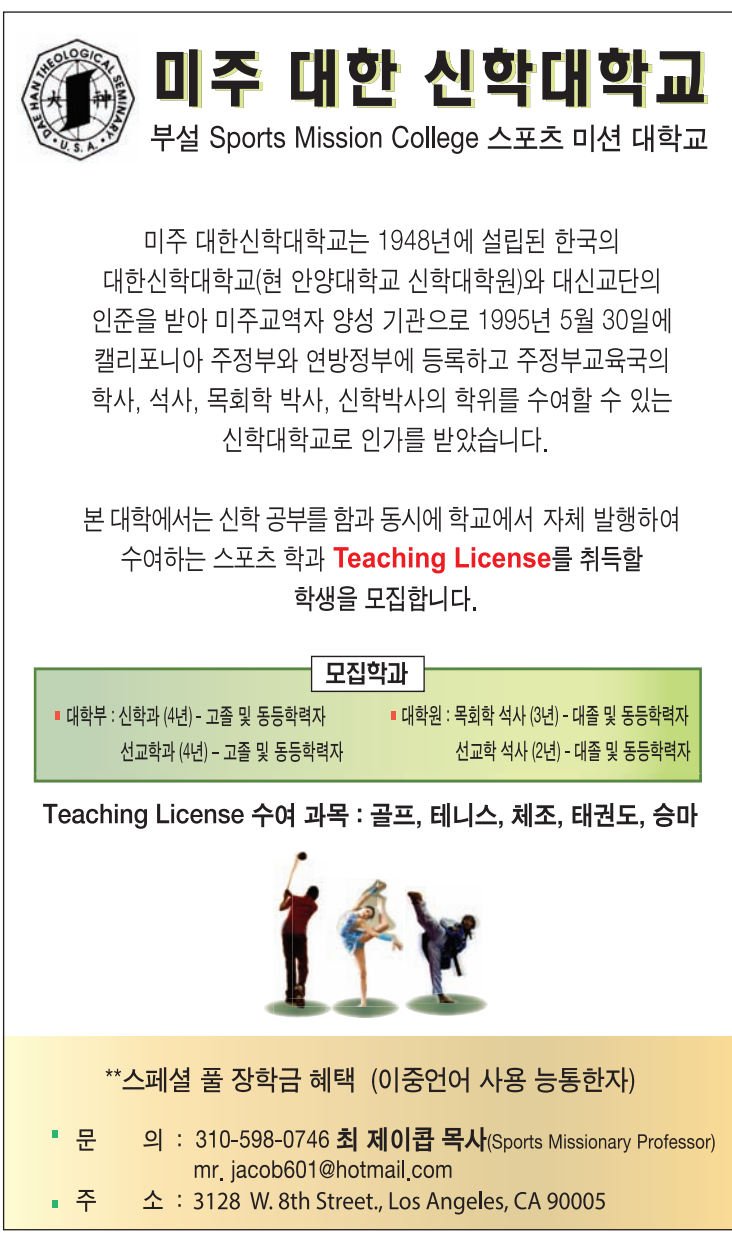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굿 아메리칸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가 부임하면서 젊은 나이에 대한 우려가 깨끗이 가서 버렸다. 먼저 리퍼트 대사는 무척이나 겸손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툴지만 한국말을 써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음식이나 기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분은 또 미국 대사라는 정치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낌없이 어울렸다. 갓 태어난 아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그 이상이었다.

특히, 사고 순간에도 크게 동요치 않고 괜찮다며 다른 사람들을 안심

시키고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리퍼트 대사의 부모들까지 사고야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 일과 상관없이 내 아들은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등,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의연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위해를 통해 한미간에 틈새를 벌이려 했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미국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청교도 정신에 바탕을 둔 굿 아메리칸들에게는 리퍼트 대사와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리퍼트 대사처럼 개방적이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려깊은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미국 양반이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다. 바라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도 이런 굿 아메리칸의 모습이 하루 속히 몸에 배었으면 좋겠다.

### 열린 성찬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한다. 나에게도 가장 기억될 만한 성찬식이 있는가?

열렸다는 말은 통한다는 말이다. 설교도 통해야 은혜가 된다. 열린 성찬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과 밥 먹을 때 마음이 열렸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로 잡은 생선으로 아침을 먹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렸다.

성찬은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몸과 피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 나를 먹고 너희가 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세우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새 언약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렘31: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31:33)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당사자, 바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순간에 볼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때처럼 성령을 통하여 똑같이 체험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며 영원성이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희생으로 초청하신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일어났고, 따라서 이제는 과거로 흘러가 버린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며(still lasting) 여전히 새롭고(still new) 처음 우리를 위해 치렀던 첫 번 것과 동일한(still the same)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22:20)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어린양 되시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성찬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고난, 즉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주체가 이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피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성찬 역시 시간의 세 차원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관점(觀點)에서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고난에 대한 기억이라는 성찬의 과거적 차원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임재와 은총의 나눔(은총의 방편) 그리고 완성에 대한 기대(장래 영광에 대한 보증표)라는 성찬의 현재적, 미래적 차원과 더불어서만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일어났고, 따라서 이제는 과거로 흘러가 버린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며(still lasting) 여전히 새롭고(still new) 처음 우리를 위해 치렀던 첫 번 것과 동일한(still the same)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들을 향한 성찬의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순절기간 성찬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2천년 전에 주님이 행하신 주의 만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경험되어 질 수 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가끔은 남편을 버리고 싶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요즘 잔소리가 부쩍 늘었어요.”  
요사이 자주 듣는 말이다. 아내에게는 말을 야기는 편인데, 50대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요구사항이 늘어났나 보다.

운동을 같이하자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뒷마당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빌(bill)을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내느냐, 망가진 오븐 수리를 위해 왜 전화를 안 하느냐, ... 막내 딸 스트레스 받지 않게 피아노 다시 배우면 좋겠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집안 일이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아내에게 맡겨 놓았는데, 요즘 본의 아니게 말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책이 “가끔은 남편을 버리고 싶다”이다.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연애 때와 달리 불룩 튀어나온 배, 반찬 투정에도 모자라 툭툭 내뱉는 잔소리, 육아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내 편 아닌 남편. 아내도 가끔은 남편을 버리고 싶다. 아내가 아닌 여자가 되고 싶다. 매

일 저녁 일상을 주고받으며, 나의 투정을 들어줄 수 있는 남자, 육아와 살림에 치인 엄마가 아닌 나를 향기로운 여인으로 봐주는 남자, 밝은 공기, 국 한 그릇만 주면 머슴처럼 나를 지켜줄 남자. 그런 남자가 내 남편일 순 없을까?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며 깨우며,  
“여보, 당신도 혹시 나 버리고 싶을 때 있었어?”  
“...”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나고?”  
왜 잡자는 사람 귀찮게 하나는 억

양으로 겨우 대답해 준다.  
“없었어!”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일단 듣고 싶은 답을 들어 안심이긴 하다. 그런데 왜 자주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을 보면 한참 자라가야 할 부분이 내 안에서 나를 찌르나 보다. 자동차도 시간이 되면 튜업을 해야 하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부부도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자동차가 굴러간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듯, 문제가 없다고 다 행복한 가정은 아니다.  
오늘부터 뱃살도 빼고 잔소리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보이스’로 거듭나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행복한 가정은 나에게서 시작한다.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에서 거듭나 따뜻한 사랑의 표현과 관심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 가정의 행복의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간다면 “매일 데이트하고 싶은 남편” 이런 책도 곧 출간되리라 믿는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걸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질, 간질중독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을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적인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흔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광(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앉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달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 건강과 성경이야기 45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절약적인 차원에서 값싼음식을 선호함으로써 몸에는 좋지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단, 뱃살이 늘어나는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혈액 내에 포도당(혈당)과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펌프질로 사용되었던 당질과 지방산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계속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 뒤가 빠근해지고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코티졸은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게 하여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설탕이나 당분이 많은 과자를 더 먹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인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 보신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5섯 가지정도 알듯말듯한 성경구절을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누가복음 16장 9절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같은장 11절 -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불의의 재물이란 불법적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 자체를 의롭지 않다고 보는것입니다.

두번째로 고린도전서 9:7에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의 뜻은 누가 자기돈을 내면서 군대에 가겠느냐는 뜻으로 같은장 9절13절14절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밭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열려하시나**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사베비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사도행전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 집을 사람의 몸을 가르키는 것이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뜻은 마지막때에 육체적인 부활을 나타냅니다.

네번째로 사도행전 26: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발발히가 네게 고생이나라** 여기서 나오는 **가시체를 뒤발발히가 네게 고생이나라** 라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시뿔을 발길질하는 것처럼 고생이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시편110편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라** 여기서 발등상은 발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할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뜻이 되는것이이지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뱃살도 빼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감수록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것보다 지방이 복부에, 그것도 내장 사이에 낀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복부지방에 따른 각종질병 예방으로서는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고급 영양제를 드시면, 우선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면서 복부의 장기들이 운동을 하게되고 이로인하여 복부지방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M3, 유태인 특수영양제M3.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빈민국에 깨끗한 물로 주님 사랑 실천을

## 원하트미니스트리, 워터투게더 콘서트 개최 설명회



원하트미니스트리가 보급하려는 워터백은 정수기의 한 형태로 오염수를 항균 필터를 포함한 4중 필터로 99.99% 정화할 수 있다. 전기가 필요하지 않기에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가능하다.

엘에이 지역 사회 중심의 문화 사역 단체인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주최하고 본사를 비롯한 기독교 언론사 및 기독교 방송사, 그리고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담임 김일형 목사) 등이 협찬하고 후원하는 워터투게더 콘서트(Water Together Concert·이하 WTcon) 개최 설명회가 12일(목) 오전 11시 생명찬교회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측인 원하트미니스트리의 피터 박 목사와 레이첼 김 간사, 그리고 배진 목사(LA청년사역자모임 회장·새생명오아시스교회 부교역자)가 참석하여 이 콘서트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했다.

피터 박 목사는 그 개최 동기에 대해 “지난해 10월, 지구촌 곳곳의 어려운 민족들과 선교지들을 돌보는 한국 오픈핸즈(Open Hands) 대표 조명희 집사를 통해 이미 동남아 지역에서의 워터백(정수기) 설치를 통한 선교 사례들을 듣게 되었다. 또한 오염된 물로 고생하는 빈민국가와 선교지, 지구촌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은 대형교회나 단체들의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를 입고 있는 반면, 빈민국의 소외계층,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며 “인도네시아 개발도시 근처의 사창가, 도시개발로 고가 밑에서조차도 밀려난 극빈층 아이들, 필리핀 공동묘지 지역의 아이들 등 다양한 지구촌 가족들에게 이 정수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러한 정수기 사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캠페인송을 준비해 공식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얻어진 수익금 일체는 남미의 파라과이 차코 지역인 디언 마을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가물고 우물을 파도 염분이 섞인 잔물이 나오는 지역으로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고이게 한 후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다. 정수기 한 대 설치비가 \$35이다. 그래서 티켓 1매 값이 \$35인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20의 정기후원도 받고 있는데 이는 정수기 필터 교환비로 충당된다.

김 간사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는 본국의 찬양 사역자로 잘 알려진 강찬 전도사와,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본국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활발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이곳 한인 2세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한인 2세 힙합팀 Amp Movement 등은 찬양으로, 존 최 목사(달라스 클로벌하베스트교회 담임·JAMA 음악디렉터)는 말씀으로 각각 섬겨줄 예정이라고 한다.

배진 목사는 “세계 선교는 1차적

인 직접적인 복음 전파에서 2차적인 문화선교 형태로 빠른 속도로 이동해 가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힐송이나 호산나뮤직의 찬양들이 저개발국가나 선교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증거다.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이 선교사역과 접목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욱 더 많아질 기대한다.”라며 “이 콘서트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오히려 힐링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피터 박 목사에 따르면, 이 WTcon 행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봄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그 명칭도 내년부터는 ‘World Together’로 바뀌어 더 많은 아이템과 방법으로 오지 선교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지역사회와 교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그리고 기도를 당부했다.

■ 행사 일정 및 문의  
일시: 3월 28일(토) 오후 6:30  
장소: 동양선교교회  
문의 및 티켓구입: 213-347-5080  
www.wtconcert.com, 티켓 \$35  
정기후원: 매달 \$20(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

이영인 기자



워터투게더 콘서트 개최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 박 목사(오른쪽)와 레이첼 김 간사(왼쪽)

# 동서선교연구개발원

## 러시아 현지인 지도력 개발에 협력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지도자들이 3월 초 만나고 온 러시아 오순절 교단 지도자들은 선교사 후보생을 위한 선교 세미나, 선교학 학위 과정 개설 등을 요청했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러시아 오순절 교회들이 자국 내 소수 종족과 구 공산권 및 중앙아시아를 위한 선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은 최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오순절 총회의 초청으로 현지의 선교사 후보생을 위한 선교세미나 및 지도자 훈련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15일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정교회가 약 75%, 이슬람교가 5%, 기타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을 믿으며, 개신교에서는 침례교단과 함께 오순절 교단, 카리스마틱 교단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3월 2일부터 8일까지 노보시비르스크 커버넌트교회 등에서 진행된 이번 현지인 선교 지도력 개발 사역에는 EWC 대표 박기호 풀러신학교 교수와 사무총장 엄경섭 선교사, 한국대표 이대학 선교사가 참여해 러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했다. 이대학 선교사는 “인천에서 출발해 복경을 거쳐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까지 총 15시간 이상 걸려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다”며 “3월 초순에도 낮 기온 영하 10도 전후에 시내에는 다 못 치운 눈이 1m 이상 쌓여있는 시베리아 동토였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교의 열의에 불타 있었다. 이대학 선교사는 “선교사를 꿈꾸는 30여 명의 러시아 기독교 지도자가 4일부터 6일까지 선교세미나에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했다”며 “선교 이론과 현장이 접목된 강의에 참석자들은 울고 웃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도 “이 세미나를 통해 세계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세계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자세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1천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커버

넌트교회 담임목사이자 러시아 오순절 총회 감독인 비탈리 막심쭈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EWC가 매년 선교세미나를 열어주고, 러시아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선교학 학위 과정도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다.

EWC 지도자들은 5일 저녁 오순절 교단, 카리스마틱 교단의 노회장급 지도자들과 상호 협력 방안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오순절 교단 대표들은 “교과, 교회를 초월해 러시아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 후보생을 위한 선교 세미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과거 공산주의의 핍박을 이겨낸 이들 러시아 교회는 자국 내 시베리아에 흩어져 사는 브리야트, 투바, 네네츠, 야쿠트, 예벤키 부족 등 100여 개 소수 종족과 구 공산권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EWC 지도자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나누었고, 건강한 선교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모색했다.

또 7일에는 현지인 지도자 100여 명이 대상으로 하는 지도력 세미나가, 8일에는 커버넌트교회 주일예배 설교, 청년모임 강의, 열방 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사역이 이어졌다. 이대학 선교사는 “주일 밤 늦게 러시아를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번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며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부르는 세계 여러 선교지의 부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선교 연구와 지도력 개발 사역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신앙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15: 45)  
1. 민족을 넘어 2. 신앙을 넘어 3. 국가를 넘어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영아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ganachurch.hompc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영아)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EM 2부예배(EM) 오후 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름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매)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HO(매) 오후 3: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1부예배 오전 9:30 토 오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매)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수/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비전채플 Vision Chapel **최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주일예배 - 월-금 오전 5: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목요일영성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F134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토)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약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글로벌선진학교가 미국 개교를 기념하며 교육 컨퍼런스를 연다.

“영성과 지성으로 세계를 향해”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개교

개교 기념 교육 컨퍼런스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에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대안학교로 알려진 글로벌선진학교(GVCS)가 드디어 미국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10년 전 설립된 이 학교는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문경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정규 중고등학교로 인가받았다. 현 재학생은 약 1000명이며 최근 졸업생 다수가 미국의 다트머스대, 코넬대, UC버클리, UCLA, 워싱턴대, 뉴욕대 등을 비롯한 해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 받았다.

글로벌선진학교는 한국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주 본토에 진출한다. 이 학교는 185에이커 대지에 80여 개 건물, 2개의 실내 체육관, 수영장, 최신 기숙사 등 미국의 명문 기숙학교들을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하다. 현재 미국 캠퍼스 입학 예정자는 9학년과 10학년 60여 명이다. 이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연간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약 2만5,000달러다.

2015년 가을학기엔 펜실베이니아 챔버스버그에 위치한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이 학교는 먼저 교육계,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교육 컨퍼런스를 연다. 오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 컨퍼런스

에서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성우 본부장, 청소년 코칭 전문가 서우경 박사, 다문화와 교육 전문가 김경옥 박사, '1달러의 기적'의 저자 최향숙 사모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컨퍼런스 참가비와 이후 워싱턴DC 관광 비용, 숙식 비용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남진석 설립 이사장은 “비경쟁적인 가치를 고양당하는 작금의 공립학교 교육 현실 속에서 글로벌선진학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향후 'Faith and Dream Project' 등을 통해 제3세계 청소년들의 무상 교육을 꿈꾸고 있다. 또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들을 적극 유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계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이미 지난 2월 10일 LA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성시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717-830-9356, 301-401-1481, www.gemgem.org

〈새벽강단71〉 고난의 풀무에서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본지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온하늘교회는 2012년 4월 창립된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한 선교 중심적 교회다. 파키스탄, 인도, 스코틀랜드 등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내년 10월에는 인도 남부지역 목회자 40명 초청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아래는 윤제선 담임목사의 3월 14일 새벽 설교다.

고난의 풀무에서 (사48:10-11)  
윤제선 목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고난을 피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게도 하고 원망하게도 합니다. 이 고난, 이로 인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48: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가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



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풀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온다거나, 아끼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을 겪는 등 갖가지 풀무 속에 우리는 빠져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풀무 속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구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고백했으며, 모세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야곱도 압박강에서 힘들고 외로운 상황의 현장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뵈었던 것을 봅니다.

이사가야 주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신과 원망을 향해서 이사는 “고난은 너희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연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 것이다”라면서, 고난의 풀무는 바로 은총의 자리, 승리의 자리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의 힘든 일이 있든 그 고난의 현장을 은혜와 승리, 치유와 영생의 자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풀무, 이 단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둘째,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는 산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승리로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43년

##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거듭날 것”

이형석 담임목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다할 터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연합 예배 전경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담임 이형석 목사)는 15일(주일) 교회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형석 목사는 ‘저 산자를 내게 주소서’(수 15:13-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시대를 밝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뒀던 갈렙을 소개했다.

이 목사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땅 흘려 희생한 주의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자신의 안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자신을 헌신한 갈렙의 믿음과 충성을 따라 주 앞으로 나아가자”고 설교했다.

그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라며 “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주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되새기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선교사가정을 파송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세상에서 불려받은 선별된 예배와 양육 공동체임과 동시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라며 “안락함을 뒤로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더욱 힘써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주 한인 이민사와 함께 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사역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이민 1세대의 헌신적인 신앙의 분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참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건강한 교회 싹복합 가정은 만드는 교회 △신앙이 성숙하는 교회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이 목사는 영적으로 잠든 미국을 위해 기도하며 무너져가는 청교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고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이민 목회가 재미없고 복잡하다고?

애틀랜타한인목사회 3월 월례회, 송영성 목사 이민목회 경험 나누



애틀랜타한인목사회 3월 월례회에서 이민목회 경험을 나누는 송영성 원로 목사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신윤일 목사) 3월 월례회가 16일(월) 오전 11시부터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에서 열렸다.

제1부 경건회 이후에는 2부 순서로 송영성 원로 목사의 이민목회 경험을 나누는 특강이 이어졌다.

송영성 목사는 대전성서대학교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총남 구자곡 양촌교회 담임 전도사를 시작으로 총남 서천월산교회 강도사 및 담임목사, 서울노회 문산교회 위임목사, 노스캐롤라이나 햇계츠타운교회 담임목사, 살롱한인남부교회 위임목사 등, 미국에서 47년간 사역하고 KAPC 동남부노회 노회장 및 제 17대 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송영성 목사는 “이민 목회는 어렵고 복잡하고 재미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은퇴 후에 뒤돌아 보니

목회 체험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크다. 이민 목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다.

목회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대해 그는 “1970년대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폐인이던 성도가 기적으로 치유된 사건이 있었다. 설교시간에 뜨거운 불을 받아고 즉시 복용하던 약까지 다 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송 목사는 “이민 목회의 어려움이 크지만 인내하시고 충성된 주님의 동역자로서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영 기자

## 뉴욕지역 2015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 돌입

뉴욕교협 주관, 뉴욕지역 2015년 부활절연합예배 장소가 총 33개로 확정,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4월 5일 새벽 6시에 일제히 드린다. 뉴욕교협은 회원교회들에 총 33개로 배정된 예배장소 표를 배분하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했다.

올해 지역 구분은 코로나, 우드사이드(2지역), 서니사이드, 엘머스트, 플러싱

(11지역), 칼리포인트, 후레시메도우(2지역), 베이사이드(3지역), 리틀넥(2지역), 웨체스터, 스테튼 아일랜드, 맨하탄, 브룩클린, 롱아일랜드(4지역) 등이다.

뉴욕교협은 부활절까지 정기적으로 준비기도회를 갖고 성공적인 행사 진행과 뉴욕교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함영환 기자

### O.C./앨버진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래(영광)새벽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요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일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  
교류부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앨버진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kim@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린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A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류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여래 오전 11:30  
KM대학점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진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점년부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점년부 오후 2:0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진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관핵심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뵈기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리의 신성하고 기쁨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자(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유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여래초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영광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요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경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침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행복한 교회 성금관리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유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 신학교 오후 7: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주혁로 담임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도.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행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같은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한국교회도 목소리 내지 않으면 영국교회 꼴 당할 것”

###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초청 강연, 동성애 이슬람 등과 관련된 영국의 현실을 주제로

한 때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 그러나 이제 해지는 나라로, 오히려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 등의 공격에 기독교는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교회성장과 선교강국을 자랑하지만, 불과 60년 전만 해도 영국이 그랬다. 몰락한 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다.

16일(월) 오전 ANI서울기도센터에서는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Christian Concern for Our Nation 창립자 및 대표, Christian Legal Centre 대표)가 초청돼 “유럽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자유 문제”(동성애, 이슬람, 선교의 자유 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전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는,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현 영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먼저 “과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법이 세계적으로 퍼졌지만, 현재는 모든 기독교적 유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신앙의 수호를 위한 조직 구성과 세계적인 연대, 펀드 조성 ▲기독교 정신이 학교 교육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현재 영국에서 교회가 대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교회는 개교회 성향이 강했는데, 우리의 관심을 이제 밖으로 돌려 정부와 지역사회, 법, 미디어 등에서도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영국은 여왕 즉위식에서도 신앙수호를 선사하고 선언했던 기독교 가치관 중심의 국가였다. 그것이 불과 62년 전이다. 당시에는 낙태도 불법이었고, 이혼도 별로 없었다. 혼외 정사로 태어난 아이도 4.8%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결혼률이 확 줄어든데, 이혼률은 급증했으며, 혼외 정사로 태어난 아이들이 50%에 육박한다. 그는 “이것은 사회혁명과 가깝다”고 말하고, “조용한 혁명 같지만,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데도 영국 교회는 잠잠했다”고 지적하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영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지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 주장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과거 세월 영국이 낙태를 비롯해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을 법률로 허용했고,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생명과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하고,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분명하게 외쳐야 한다”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1967년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됐다고 한다. 1970년대 동성애 자유해방전선이 설립됐고, 그 때부터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을 자랑스럽다 외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2년 게이퍼레이드가 처음 열렸고, 안드레아 변호사는 “지금 게이퍼레이드가 열리면, 영국

는 ‘동성애 문제가 종교 문제 위에 있다’고 말하고, “2002년 동성애자들이 아이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이 영국에서 생겼고, 2004년에는 성전환자가 전환된 성을 인정받는 법이 통과됐으며, 2014년에 동성애자들이 합법 부부가 되는 법이 통과됐다”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막으라”고 당부했다. 영국에서는 이 법들의 실체를 몰라 교회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인권문제로 포장하는데, 지금 아주 악한 것들을 입법화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재 영국에서는 여기에 대항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보수당까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지적하고, “캔터베리 대주교(영국성공회)나, 심지어 영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조차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갈 데까지 갔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느냐”고 말하고, “영국성공회에서는



강연 중인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왼쪽)

는 동성애자들의 공격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쫓겨났고, 정부 건물에서조차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동성애 반대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벌금을 14만 불을 내야 했으며, 항소를 했지만 영국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 세력과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한국도 지금부터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들고 조직을

재하고, 친동성애 NGO가 있을텐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 영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 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현재 영국에서 노방전도자도 체포되고, 비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 SNS로 전도하면 계정을 잃거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상징을 제거하기 위한 일들을 벌였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안드레아 변호사는 “지금 이런 세속주의가 영국 기독교에 압제를 가해오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핍박하면서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급진 이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샤리아(이슬람) 법정이 실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영국 대학과 교육기관에 이슬람 머니가 어머니 마하게 들어왔다고 한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지금 이슬람이 사회를 주도하고 사람들이 이슬람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캐머런 총리가 영국 런던을 이슬람 금융센터로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제 이슬람을 비판하면 직장을 잃기도 하는데, 법정이 든 학교든 모든 공공장소에 무슬림을 위한 기도처는 있는데 크리스천 기도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변호사는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로, 영국 크리스천 변호사 협회(CLC) 공공정책 분과 대표를 역임했으며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General Synod(주교, 및 선출된 지도층 인사들로 구성)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수민 기자

## 생명과 가정 등한시한 사회풍토 방관한 英교회

### 차별금지법이 교회의 ‘족쇄’

에서는 마을 전체가 무지개로 덮히고 난리 나는데 목사들은 모른 척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2000년도 군대 내 동성애 금지조항이 사라졌고, 2004년에는 대중 앞에서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이 16살로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는 “아예 영국 국회에서 성관계 가능 연령을 없애자고 논의 중”이라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동성애 로비단체 스톤월은 2006년부터 호모포비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한국 동성애자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 말하고, “호모포비아 때문에 내(동성애자)가 고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것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것이 허용된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친동성애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동성애 반대인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기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영국에서 2010년 제정됐다고 한다. 안드레아 변호사

여자 사제가 남자 동성애자들 사제에게 안수를 주는데, 그들은 ‘내가 동성애를 하다가 지옥을 간다면 가겠다’고도 한다”면서 “교회가 젊은 이들에게 분명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 했다. 이어 “교회가 계속 패배해 왔다”면서 “한국교회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할 것”이라 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추천 도서 등에서조차 동성애 조장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공립 학교에서는 이 책들을 반드시 읽게 한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들도 많아졌고 동성애 문제를 상담해 주던 많은 이들이 법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영국)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때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Christian Concern for Our Nation에서 젊은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훈련시키는 ‘월버포스 아카데미’를 진행 중인데, 처음 시작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고 중요한 시기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조국을 구하는 길 이 될 것”이라 했다. 덧붙여 “해외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과 조국을 건설하라”고 말하고,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려 고통당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영국 정부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잘못 믿고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가 고쳐주겠다”면서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영국 학교에서 격리당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학교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애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예수를 찬양해서 해고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

**TOGO & 캐더링 촬영**

# 미글러 싸갈러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전문**

**정성껏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에 통일의 날이 임하도록!

한국과 해외의 교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도록!

# 통곡기도회

## 기도행진 선언

해외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통일의 해로 선포하고 통일 한국을 통해 복음선교의 물결이 북한 땅에 밀려 들어가도록 함께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 기도제목

- 주여, 유대민족처럼 동서독처럼 우리 민족을 분단 70년에 통일시켜 주옵소서!
- 주여,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열리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굶는 자들이 먹게 하소서!
- 주여, 북한의 지하성도들이 풀려나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 주여, 북한 동족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북한선교의 문을 열어 주소서!
- 주여, 통일된 후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선교하는 선교민족이 되게 하소서!

### 2015년 통곡기도대회 일정

- 달라스 통곡기도대회 - 5월 13일 (수) 장소 : 빛내리교회 / 달라스 지역
- 디트로이트 통곡기도대회 - 5월 20일 (수) 장소 :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 미시간지역
- 아틀란타 통곡기도대회 - 5월 29일 (금) 장소 : 베다니교회 / 조지아 지역
- 와싱턴 통곡기도대회 - 7월 15일 (수) 장소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 뉴욕 통곡기도대회 - 9월 16일 (수) 장소 : 뉴욕순복음교회 / 뉴욕지역
- 로스엔젤레스 통곡기도대회 - 9월 29일 (화) 장소 : 크렌셔 크리스찬 센터 / 남가주 지역

### 호소합니다 !!

- 통일없이는 진정한 북한선교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 통일없이는 진정한 남한교회의 대각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선언합니다 !!

-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의 100개 이상 교회들에서 통곡기도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 올해 말까지 시드니와 동경과 파리에서 해외 통곡기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 너희를 전 세계에 흠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 " (에스더처럼)

" 내 백성을 가게 하라 !! (모세처럼)

"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 " (바울처럼)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 **공동대표** 박희민목사, 이원상목사, 송정명목사, 김인식목사, 손인식목사, 송기성목사, 임창호목사
- **국제대표** 손인식목사
- **연락처** UTD 선교본부 사무실 문성범 행정실장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s Viejo, CA 92691  
이메일 : utdusa21@gmail.com, 홈페이지 : www.kccnk.org

1.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 본부의 문성범 실장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949-297-3788)

2. 후원하시기 원하는 분들도 UTD 본부의 문성범 행정실장에게 전화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꾸란의 속죄, 성경과 달리 '보상 원리' 를 따라 이뤄져

극단주의 무슬림의 프랑스 언론사 테레에 이어 IS(이슬람국가)의 일본 크리스천 언론인 '참수'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동주 박사(사진·선교신학연구소장)가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4) 구원론

### 4.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꾸란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도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지 않고 창조되었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Sura 30:30). 하나님은 아담을 즉시 용서하셨다고 하며(Sura 2:37)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꾸란은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욕되게 했을 뿐이라고 한다(Sura 7:23).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창조시 심히 좋았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관해서 알게 하고(창 1:31)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롬 3:9-18). 성경은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렘 17:9)"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어떤 불의와 죄악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다.

구원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수행해내신 것이다.

윤리적 업적을 평생 쌓아도 도달할 수 없는, 모든 인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외에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타락한 죄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속할 속죄양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도말하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두 성품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이슬람교와 꾸란이 기독교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점이다.

### 4-1. 꾸란의 구원론

꾸란 율법서에 기록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을 꾸란은 아래와 같이 비슷하게 인용해 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상치는 상치로 대하라 했으니...(꾸란 5:45)

믿는 자들이여 살인의 경우 자유인 대 자유인 종복 대 종복 여성 대 여성으로 동등한 처벌규정이 기록되어 있노라...(꾸란 2:178)

알라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의 악행을 계산하여 선행과 악행에 감절 또는 10감절로 갚는다(Sura 4:40, 6:60). 그러므로 인간이 알라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선행을 지불해야 한다. 꾸란은 선행을 많이 쌓을수록 악행이 제거된다고 가르친다(Sura 11:114-5).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악행을 용서해 준다는 논리이다.

꾸란에도 알라는 믿고 선을 행하고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에게 보상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Sura 2:277). 꾸란 35:29에는 알게 모르게 자선을 베푸는 자들은 불멸의 이익을 얻는다고 기록되었는데 이 '이익'은 무역, 거래, 상업과 같은 뜻이다. 무슬림의 선행을 알라와의 상업행위이다. 알라는 심판의 날에 겨자씨 만한 선행들과 악행들의 무게까지도 다 저울에 달아 계산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시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 만한 무게일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계산하시니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Sura 21:47).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모든 생애 동안 선과 악이 계속 축적되고 심판의 날에 모두 합산하여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거나 새 사람이 되는 경우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제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거부하고, 또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행 2:38) 인간의 본성에 어떤 변화(겔 36:26-27)도 없이 그대로 자신들의 선행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Sura 21:47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무슬림들은 그들의 죄들을 위해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선행을 지불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과 불안정에 시달리며 점점 더 알라의 노예가 되어 간다.

### 4-2. 꾸란의 '속죄'

이슬람교는 꾸란의 가르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속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폐쇄시키고 있다.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오거늘 누구든 타인의 집을 그가 질 수 없노라(Sura 6:164)

위 구절에 대한 각주는 자기 행위의 결과는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죄악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누구도 타인의 죄악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예수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Sura 6:164 각주 164-1).

이와 같이 무슬림들은 속죄받을 길을 그들의 경전에 의해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꾸란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피조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스스로 윤리적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님의 대속 행위를 철저히 부정한 꾸란에도 '속죄'하는 단어가 있다. 꾸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대신에 자기 자신을 통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꾸란은 죄를 범한 인간이 10명의 불쌍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거나,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거나,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사흘간의 단식을 하면 알라가 속죄해 줄 것을 언약하였다(Sura 5:89).

Sura 2:196에는 만약 인간이 알라의 속죄를 받으려면 그의 가정의 짐승으로 카바 제단에 헌신해야 한다. 만일 메카나 거룩한 땅까지 순례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삼일간 금식을 하든지 60명에게 음식을 먹이든지 소나 양을 잡아 희생하면 알라의 속죄를 받는다(히 8:5, 10:1)

최영길은 Sura 2:271을 번역하면서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선을 베풀면 그들의 죄가 속죄받는다(히 8:5, 10:1)고 하였다. 같은 구절의 영어 번역은 "속죄"에 대하여 "It will remove from you some of your evil", 독일어 번역으로는 "Er wird eurer Sünden von euch hinwegnehmen"으로 돼 있다.

이슬람의 속죄는 꾸란적인 보상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실수를 제하면 무슬림은 무슬림을 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실수로 무슬림을 살해했다면 그 값으로 노예 한 명을 해방시켜 주고 그 피해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Sura 4:92).

그의 속죄로서 열 명의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이는 너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또한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되나니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삼일간 단식을 하라 그것이 내가 언약한 속죄이니라 그러나 너희 언약은 지켜야 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감사하라(Sura 5:89).

이와 같이 꾸란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야 할 인간의 무거운 죄악이 사흘 금식이나 10명 음식대접으로 '속죄'될 수 있다고 한다.

이슬람에서 최대의 보상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참여하여 '순교'하는 길이다. 꾸란은 무슬림이 전사하면 천국(Paradise)으로 직행하고 알라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가르친다.

위와 같이 꾸란의 '속죄'는 죄인인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이다.

### 4-3. 성경의 속죄와 속죄 양

이슬람교에도 어린양을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 희생제물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바칠 때 알라가 이스마엘 대신 준비한 양을 기념해서, 매년 '이들 아드하'라는 축제 날에 양을 잡아서 가족과 친척·친지들과 나누며 기념한다. 그러나 이 양은 성경과 같은 속죄 내지 대속적 의미가 전혀 없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과(창 9:4, 레 17:11),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히 9:22).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함도 알게 한다. 속죄제물이란 구약에서 '화목제물'과 동일시되며, 힐라스테리온(레 16:2)이라고 한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은 타락한 죄인의 몸값(루트론)을 지불하는 것이다.

성경적 속죄론은 꾸란의 속죄론

과 완전히 다르다. 꾸란의 속죄는 자기가 하는 반면, 성경의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롬 6:23) 모든 인간이 사망한다는 것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인간 중에서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속죄할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분리된 관계에 놓여 있다(사 59:1-2)는 것이 삶을 통해서 잘 경험되고 있다(골 1:21, 롬 5:10, 8:7).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중보자는 이 멸망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을 위해서 속죄를 해주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성경적인 속죄란 우리 죄의 대가로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메시아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을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것이다.

구약은 죄인이 형벌을 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동물 희생제를 통한 속죄(출 29:36, 레 4:20, 16:9-10)이다. 동물이 죄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었다. 이미 구약을 통해 무수히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사 53장은 이러한 대속물(롬 5:8)로 자신을 희생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러한 속죄를 위한 희생적 사랑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였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신약의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약적 동물인 속죄양은 신약적 속죄의 완성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알고 있다(히 8:5, 10:1)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경산한외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물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외과 대학교수) T.(213)380-0853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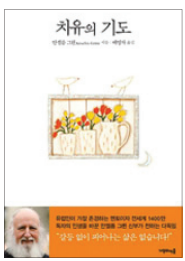


### 신간추천

#### 치유의 기도

안젤름 그린 | 나무의마음 | 264쪽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베네딕트수도회 소속인 저자는, 살아 있는 공동체라면 어디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문제 상황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적극 풀어가야 할 때 함께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무조건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



#### 예수 생각

육타비우스 원슬로우 | 생명의말씀사 | 176쪽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31일'을 주제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31가지를 제시한다. 국내에 다소 덜 알려진 저자는 19세기 당시 찰스 스피전, J. C. 라일과 함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로 불렸다. 이 책은 한 달간 소그룹이나 개인별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픈 마음을 품게 한다.



#### 영산 설교

심두진 | 교회성장연구소 | 236쪽

영산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대해 학문적으로 파헤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한세대 교수인 저자는,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목회 패러다임 등에 따른 그의 설교에 대해 분석하고,곽선희·김삼환·이영훈 목사의 설교와도 비교해 본다.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했던 설교의 '비결'이 들어 있다.



####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가이 프랜시스 워터스 | P&R | 320쪽

원제는 'How Jesus Runs The Church'로, 교회의 정치원리와 구체적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 정치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제도적 유형들을 살펴면서, 특히 PCA 총회의 교회헌법 규정들을 통해 유서 깊은 논증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교회 정치가 제자도(discipleship)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교회 정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REVIEW

### “강해설교, 현 시대 청중 위해 본문 의미 전달하는 것”

#### 강해설교 준비에 필요한, 실제적 · 구체적 12가지 방법론

이 책의 저자인 웨인 맥딜(Wayne McDill)은 미국 동남부침례신학교(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설교학 명예교수로, 아래 네 가지 강조점에 근거해 12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강해설교에 대해 “단지 본문만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나 본문에서 드러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닌, 현 시대의 청중을 위해 성경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려 고안된 것”이라고 전제한다.

첫째, 본문에 대한 접근은 귀납법적 성경 연구와 관련된다. 둘째,

본문으로부터 설교에 도달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핵심단어 접근법(Keyword method)이라 부른다. 셋째, 설교 본문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설득과 전달이 되도록 일반 수사적 요소를 사용한다. 넷째, 설교를 계획함에 있어 제시된 방법은 청중에게 최대한 호소하기 위해 말로 전달하는 표현에 집중한다.

저자는 '설교의 기술적 향상'에 대해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은 특정한 기교에 있어 능숙하고도 전문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들은 적절히 부과된 과제 안에서 충분한 연습과 함께 하는 훈련과



강해설교를 위한 12가지 필수기술 웨인 맥딜 | CLC | 480쪽

정을 통해 서서히 단계적으로 발전되고, 그 이후 '기술 향상'은 이 특정

한 기교에 있어 자신이 그것에 능숙해지도록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술(skills)은 특별한 경험이나 정기적 훈련과정을 통해 주어진다. 책은 강해설교를 본문 분석과 신학적 해석, 설교 전개와 설교 디자인 등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 살펴면서, 각각에 대해 세 가지씩의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문구조 도해하기, 본문 세부사항 이해하기, 연구질문 제기하기, 본문 아이디어 표현하기, 본문을 설교로 연결하기, 설교대지 작성하기, 설득 요소간 균형 맞추기, 자연스러운 비

유 찾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사람들의 경험 다루기, 믿음의 반응 목표하기, 구두 전달 구상하기 등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통해 “효과적인 설교 준비에 관해 배운 방법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아이디어에서 멀어지는 경향과 직면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설교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고, 여기에는 설교 준비 방법뿐 아니라 본문 연구 습관, 지속적인 개선, 시간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책은 12가지 필수기술을 접목한 설교 예문도 수록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 성화특별기획전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 ‘내면의 전쟁’ 객관화시킨, 존 번연의 또 다른 역작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풍유적으로 서술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은 영적이나 문학적 측면에서 <천로역정>에 버금가는 탁월한 저작이다.

<거룩한 전쟁>은 한국청교도연구소장 김홍만 목사의 충실한 조언처럼, 내면의 영적 체험을 그려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김 목사는 <천로역정>과 <거룩한 전쟁>을 이렇게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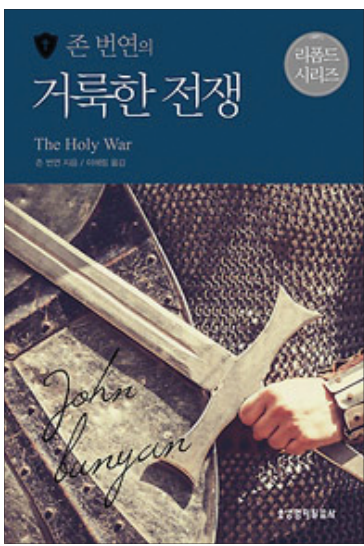
“<거룩한 전쟁>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함께 또 하나의 걸작이다. <거룩한 전쟁>은 <천로역정>과 같이 풍유적으로 서술된 작품이지만, 이 둘의 스타일과 등장인물은 확연히 다르다. <천로역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순례 길에서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영적 체험을 다루고 있는 반면, <거룩한 전쟁>은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로역정>은 개인의 거듭남과 영적인 체험, 천상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체험의 이야기다. 세상이라는 장막성에서 전도자에게 복음과 성경을 전해 받는다. 성경을 통해 자신이 받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 크리스천. 결국 친구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귀를 막고 ‘영생 영생 영생’을 외치며 장막성을 빠져 나간다. 십자가에서 짐을 내려 놓음으로 순례의 길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천상까지 가는 노정(路程)에서 갖가지 유혹과 장애물을 만나지만, 결국 천상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다.

<천로역정>은 탁월한 영적 우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주인공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독단적 선택을 하는 무책임한 가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2부에서는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라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거룩한 전쟁>은 <천로역정> 1부가 출간되고 2부가 완성되어 가는 중간인 1682년 출간되었다. 저자는 개인화된 구원의 여정을 보편적 구원서사로 풀어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거룩한 전쟁>은 ‘맨소울’이라는 성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우화(寓話) 형식으로 풀어낸다. 맨소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샤다이 왕’이 건축한 성이다. 구약에서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데, 존 번연은 엘을 빼고 샤다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했다. ‘샤다이’를 굳이 번역하자면 ‘전능자’ 또는 ‘통치자’



거룩한 전쟁  
존 번연 | 생명의말씀사 | 392쪽

가 될 것이다.

기쁨의 성이었던 맨소울에 어느 날 디아블루스가 침략해 들어온다.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성을 빼앗은 디아블루스는 맨소울을 포악하게 다루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맨소울 주민들은 샤다이 왕에게 구원해달라고 청원한다. 샤다이 왕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인 임마누엘 왕자를 장군들과 함께 보낸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이 성육신한 예수님을 말한다. 치열한 접전 끝에 임마누엘 왕자는 맨소울성을 되찾고, 맨소울 주민들은 기쁨을 회복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맨소울 주민들은 디아블루스의 수하인 ‘육적 안일 씨’의 농간에 넘어가 다시 임마누엘 왕자를 따돌린다.

‘육적 안일’은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다.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뜨겁고 활기에 넘치는 것 같지만, 내면 상태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예배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

결국 임마누엘 왕자는 맨소울의 차가운 외면에 성을 떠나게 되고, 맨소울은 다시 디아블루스의 반격

을 받게 된다. 맨소울 주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과 위급함을 깨닫고 긴급회의를 열어, 임마누엘 왕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임마누엘 왕자는 거듭된 청원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는다. 절박한 심정으로 고통을 당하던 맨소울 주민들은 디아블루스의 의심 군대를 상대하며 처절한 삶을 연명해 가면서도, 임마누엘 왕자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한다.

이처럼 철저히 낮아진 맨소울의 상태는 영적 나태와 거만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내면을 보여준다. 임마누엘 왕자는 거듭된 청원에 결국 다시 맨소울을 구원하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창조, 타락, 구속, 나태, 고난, 회복이란 구원 서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천로역정>과 완전히 다른 영적 측면을 보여준다. <천로역정>이 개인의 구원과 천상을 향한 여정이라면, <거룩한 전쟁>은 성경의 전 연대기를 담은 신학적 이야기다. 조밀하게 짜인 플롯과 배경인물 설정은 존 번연의 탁월한 영적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천로역정>으로 다 답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서사를, 저자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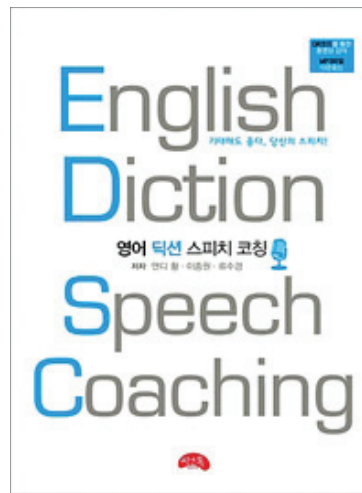
청교도였던 존 번연은 말씀의 깊이 문학적 기교를 더해, 당대의 청교도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다. 일반 목회자들이 딱딱한 설교와 신학적 저술을 통해 영적 문제를 해석한 반면, 존 번연은 소설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들려준다. 그래서 그의 저작들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문학사적으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설교와 강해만으로 풀어낼 수 없었던 신학적 난제들을 소설을 통해 선명하게 그려 주었던 것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은 영적 전쟁터와 마찬가지로이다.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다. 존 번연은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우화라는 매체를 통해 객관화시켜 바라보게 한다. 맨소울을 점령한 디아블루스는 맨소울 주민들을 헛된 희망의 투구, 굳은 마음의 흉갑, 저주하는 혀, 불신앙의 방패,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장시킨다. 이러한 무장은 사탄이 점령한 인간의 내면이다.

정현욱 목사  
로고스서원 연구원

##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이들에게

‘영어 발음과 스피치’에 대한 신개념 ‘토탈 솔루션’



영어 디션 스피치 코칭  
앤디 황 · 이종원 · 류수경  
씨앤텍 | 208쪽

‘드립타입’이 다시 뭉쳤다. ‘주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돼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선교 영어: 입문편>을 쓴, 국내 1호 디션·코칭 강사 앤디 황 교수와 영어교육 및 발음 전문가로 여러 국제단체에서 활동중인 이종원 선생이 이번에는 <영어 디션 스피치 코칭(English Diction Speech Coaching·이상 씨앤텍)>을 함께 펴냈다.

이번 책에는 특히 인천대 겸임교수이자 인기강사인 류수경 아나운서가 합류해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영어뿐 아니라 ‘스피치’에 초점을 맞춘 것. 시중에 범람하는 영어발음 책, 일상 대화 책, 스피킹 책들과 차별화해 이 모두를 총체적으로 접근, 혼자 힘으로 입을 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영어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 조음근육(English articulation muscles)’, 즉 ‘특정 어휘 큰 소리로 반복 읽기’를 통해 미국식 영어에 최적화된 구강근육을 최단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형성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올바른 호흡과 발성, 목소리와 제스처 등 스피치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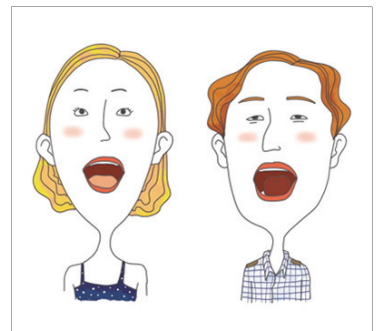
책 제목인 ‘영어 디션·스피치 코칭’이란 개인이나 그룹이 가진 현재의 영어 실력을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키며,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으로 스피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영어에 있어 ‘좌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의 소리와 발음에 대해 깊이 연구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켰고, 영어스피치 코칭을 통해 한국인도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로 원어민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스피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는 등 미국에서 21년간 생활했던 앤디 황 교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인을 가르쳐 본 결과, 겉보기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 같은 부류가 있지만 유창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한국인들은 영어발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상 발음은 대단히 중요하고 전문 분야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션 코칭과 함께 3-4장에서 ‘스피치 원포인트 레슨’과 ‘실전 영어 스피치 활용’을 제시하면서 ‘영어 발음을 전하는 법’ 뿐 아니라 ‘영어로 말을 잘 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말하는 ‘좋은 스피치’는 목적과 상황에 맞춰 청중들에게 내 스타일을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대웅 기자



구강 근육 스트레칭하는 방법. 입을 ‘V’ 모양으로 최대한 크게 벌리고,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뺀 다음, 혀를 최대한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다. 그리고 혀를 앞니 상단 뒷부분과 하단 뒷부분에 붙여본다. 이상 5가지 동작을 천천히 3회 반복한다.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히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원 FDA 임상 2차 실험 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범위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 TOGO & 캐더링 원영

###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부어귀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16개국 기독교 지도자들, 국제친선조찬기도회 참여

### “위기에 빠진 세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



참석자들이 기도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47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16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함께 친선을 도모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날 ‘국제친선조찬기도회’는 김한표 의원(국회조찬기도회 총무)의 사회, 임내현 의원의 대표기도, 손인호 교수(영혼의울림연구소 소장)의 특별찬양, 홍문중 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의 환영사, 감경철 준비위원장(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격려사, 글렌 머레이 위원장(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아시아위원회), 아이오안 쿠프사 의원(한국·루마니아 의원친선협회 의장), 타마스 로바시 사무총장(헝가리국가기도회재단),

사이문 홍 회장(대만 국가조찬기도회)의 외국 대표 축하 메시지, 임용근 회장(세계한인정치인협회의)의 재외동포 대표 축하 메시지, 조원구 회장(세인트루이스한인회)의 조찬 기도회로 진행됐다.

홍문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는 처음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300명 중 106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정치를 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각국에서 온 지도자들과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언어와 표

현방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감을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감경철 준비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어 감사드린다”며 “지금 세계가 테러와 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또 우리의 기도가 분단 70년을 맞은 한반도를 하나되게 만들 수 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지나 희년을 맞았듯이, 한국도 그런 역사를 맞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국 대표 중 아이오안 쿠프사의원은 “제 생각과 입술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일과 평화’, ‘지도자와 지도력’이 떠올랐다”며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평화와 통일을 조만간에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루마니아도 아픈 경험이 있다. 45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고 분단의 아픔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25년 전 해방되고 단 며칠 만에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했다.

하석수 기자

# 한기총, 소외계층 위한 부활절 특별예배

### “日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탈북민 가정 등 초청할 예정”



지난 2013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됐던 한기총 주최 부활절연합예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을 위한 한국교회 부활절 특별감사예배’를 부활절인 오는 4월 5일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섬김과 나눔’을 주제로 열리는 이 예배 설교는 한기총 명예회장이자 총신교회 원로인 박종순 목사(예장 통합)가 맡기로 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는 연례 행사처럼 드러져 왔다. 그런데 이번 준비 과정에서는 한기총이 소외된 계층을 되돌아보고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지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일본군 위안부들과 장애인, 다

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일본군 위안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고, 170만 명을 넘어서는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도 인권 의 시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며 “상당수 장애인들도 보호를 받지만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고, 탈북민들도 한국에 와서 길드는 현상이 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로 부활절 예배에 함께 초청하려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특별감사예배 헌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한교연과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 선교협약 체결

### “선교의 지상명령 실현 위해 상호협력 다짐”



한교연과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가 선교 MOU를 체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과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Fidel Lorenzo 목사)가 선교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화) 한교연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선교적 차원에서 상호협력해 주님의 선교 지상명령을 실현하는 데 힘을 합하고, 양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상호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기독교 사이비 및 이단 집단들에 대해 단호하게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음적인 신학과 선교

에 있어서 교류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선교적 차원에서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적인 시련과 재난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상호협력하고, 상호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동반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지난 3월 3일 제4-2차 임원회시 도미니카공화국 최광규 선교사에게 자필 서명한 선교 협약서를 미리 전달한 데 이어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차 입국한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피델 로렌조 목사 등 대표단 일행이 한교연을 방문해 정식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다.

증경대표회장단과 함께 출국한 양병희 대표회장을 대신해 협약식에 참석한 공동회장 전광훈 목사는 “양국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시 사도행전적 복음의 능력을 살려 나가길 간구한다”고 말했다.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 대표로 대표회장 Fidel Lorenzo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연과 선교협약을 맺어 감회가 새롭다”며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교연 대표로 공동회장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공동회장 이종복 목사, 서기 이태운 목사, 총무협 회장 홍호수 목사,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가, 도미니카공화국 기독교연합회 대표로 대표회장 Fidel Lorenzo, 부회장 Abraham Bevra, 부회장 Pedro Choi, 이사 Daro Maeo, 사무총장 Samuel Guzman 등이 동석했다.

이수민 기자

# 종교개혁 500주년까지 한국교회 변화 캠페인

### “NCKK 김철환 위원장, 기자간담회 통해 계획 설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이하 종교개혁500주년위) 신임 위원장인 김철환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가, 13일 서울 후암동 루터회총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밝혔다.

김 총회장은 “저의 임기가 정확하게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 10월 31일까지인데, 기독교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한다”며 “그날까지 책임을 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끌어가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위는 2014년 루터회가 NCKK 실행위원회에 요청해 구성됐으며, NCKK 가입교단에서 파송한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 총회장은 “종교개혁500주년위는 한국교회의 자성과 통찰에 주목하려 한다”며 “개혁을 말하면 그 주

체와 대상이 생김으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남이 아닌 ‘나부터 개혁하자’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7천만 동포여, 하나님께 돌아가자’를 표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4월 18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기독교 아고라 500인 회의’(가칭)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발제는 손봉호 교수 외 1인이, 개회 공연은 이 사벨(파페라가수), 배주는 교수(구세군사관대학대학원) 등이 맡는다.

이에 대해 김 총회장은 “2017년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일까지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500주년 기념일은 한 번 지나가면 역사 속에서 또 오지 않는다. 기념사업이 단순 행사가 아닌 한국 기독교회의 거듭남을 통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굿네이버스는 기독교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http://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